

#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계 활성화

## 코로나19 예방·안전 전시환경 제공

부안 청자박물관, 유해군 박물관 등 오늘까지 훈증소독 실시

전주시, 내달 2일까지  
문화예술인 릴레이 간담회  
복지지원 정책 중심 논의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 시는 문화예술 기획 분야를 비롯해 미술, 공연, 공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100명이 참여해 그룹별로 6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간담회에서 시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또 전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들도 적극 안내했다. 향후에도 시는 회당 분야별 15~20명으로 나누어 릴레이 간담회로 진행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위기 회복방안을 논의하고 전주시민의 독자적인 예

전주시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

술인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관광·숙박업과 체육 분야,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관광객도시를 이끌어갈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확실한 대안과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이번 릴레이 간담회가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기반의 모태가 돼 예술인들의 복지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부안 청자박물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청자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해충과 유해균에 의해 소장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이용해 훈증소독을 실시해 유해균 박멸을 통해 안전한 전시·관람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훈증소독은 전시실 및 수장고, 소장유물 등에 대해 공간을 밀폐한 후 전문가에 의해 인체에 무해한 전문약제 살포 및 훈증을 하게 되며 유해균 테스트를 실시해 균의 박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청자박물관 1층에 위치한 청자제작실의 경우 나무와 땃질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초기와 청자운반 선박 등의 모형과 소품에는 공기 중에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훈증소독.

포함된 유해세균과 해충 등의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며 전시실 및 전시유물에 대한 훈증소독과 아울러 수장고 내부와 보관유물에 대한 약제 살포를 진행한다. 청자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을 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당부드린다"며 "관람객에게 안전한 전시·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문화예술 백신으로 코로나19 극복

고창지역 문화모임, 감염병으로 지친 주민 응원 나서  
고창군·고창문화재단, 손소독제 만들기 등 진행

고창군의 문화예술 모임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응원의 힘을 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9일 고창군과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인 모임들이 활동영역을 확대해 '코로나19극복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고창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 청소년 미디어교육 등을 진행하는 '꿈그림시어터'와 '환경교육센터'는 협업을 통해 고창읍성 입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 영상제작과 교육, 엽서쓰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고인돌공원에선 '노르딕생태놀이, 숲 놀이, 엽서쓰기' 부스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육아모임 '온디자이너컴퍼니'도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머무르는 아이들과 함께 손소독제와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선주 강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면서 많이 답답해 하고 있다"며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기운을 북돋아주고 놀이하면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같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공습지생태관광협회는 아산면, 무장면, 해리면, 성송면, 대신면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먹거리 간식을 나눠주는 '고창생생치유 간식'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영상제작 모임인 '고창Q'에선 코로나19를 이기는 나만의 지혜를 담은 청소년 UCC 공모전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단의 여원경 사무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과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힘내라 고창군' 캠페인에 동참하고, 군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만인의총 내달 5일까지 휴관 연장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휴관 중인 전북 소재 국립무형유산원과 만인의총 기념관 휴관 기간을 내달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달 22일까지 휴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주간 더 연장했다. 현재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휴관 기간 연기는 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연장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휴관 기관 및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운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이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